

도내 중·고생 교복구입비 지원액 1인당 33만9000원

2025학년도에 시행... 2019년 이후 6년 만에 인상

교육 공공성 강화 ·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기대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액이 1인당 33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액을 3만9,000원 인상했다.

이는 2019년 이후 6년 만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은 매년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복은 학교주관 공동구매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물(교복)로 지원한다.

교육 학교주관 공동구매란 학교에서 입찰·계약을 통해 교복을 구매해 학생들에게 현물(교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액은 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예산을 교부한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중·고교생 교복구입비 지원액 인상으로 학부모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관광 공동 마케팅 ‘맞손’

전북문화관광재단, 임실군과 협약 체결

2025 임실 방문의 해 성공 추진 등 목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지난 24일 임실군(군수 심민)과 관광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5 임실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과 임실군의 천만 관광객 유치 목표, 재단과 임실군 간의 자원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임실 보유 콘텐츠 활용 관광상품 발굴 및 판매촉진 지원 △재단-임실군 연계를 통한 ‘2025 임실 방문의 해’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 추진 △임실 관광 홍보 미디어 제작을 위한 콘텐츠 이용 및 시설 편의 제공 △임실군 관광 발전 도모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4일 임실군과 관광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제공)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공동 노력 등이다. 특히, 재단은 임실군만의 특화된 관광 콘텐츠를 활용해 미식 투어 상품, 야간경관 활용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학습도서관, 스마트융합라운지로 ‘새단장’

개방형 개인 열람실부터

학습 · 휴식 가능 공간으로

우석대학교 학습도서관이 스마트융합라운지로 새단장했다. 이에 따르면 소통의 공간, 배움의 공간, 휴식의 공간을 목표로 6개월의 공사기간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새로 단장한 학습도서관은 1층 114석과 2층 142석, 3층 147석 등 총 403석 규모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약 10억원이 투입됐다. 특히 전 층 모두 노출형 천장으로 공간감을 확보한 학습도서관은 모바일 앱과 좌석배정시스템을 통해 전 좌석 예약제로 운영되며, 모든 좌석에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또한 전자사물함과 복사기 등의 편의시설도 비치됐다. 1층은 오픈 라운지와 개방형 학습공간, 2인 학습공간으로, 2층은 대학의 교화인 매화 색을 반영해 정열적이고 도전 정신의 의미를 가진 레드 계열 색상을 반영했으며, 주로 조용히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채워졌다. 3층은 대학의 교수인 파랑색에서 색을 차용해 미래와 평화의 의미를 청색을 사용했으며, 지역 주민



우석대학교 학습도서관이 스마트융합라운지로 새단장한 가운데, 박노준 총장과 이진선 도서관장 등 관계자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고 있다.

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80석도 마련됐다. 박노준 총장은 “학습도서관 리모델링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스타일과 취향을 반영한 공간으로, 학습과 휴식을 동시에 제공하는 혁신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학생들이 집중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융합라운지 공간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진선 도서관장은 “새롭게 개편된 학습도서관은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과 최신 기술을 결합해 학습뿐 아니라 소통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무역학과, 대학생 FTA 활용 학술대회 ‘4년 연속 수상’

논문 · 동영상 부문 최우수 · 우수 · 장려상 등 휩쓸어

전북대학교 무역학과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한 ‘2024년 대학생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학술대회’에서 논문 및 동영상 부문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휩쓸며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르면 논문 부문 최우수상(산업부장관상)은 무역학과 김수진(20), 박수연(20), 박준모(21), 황인형(19) 학생이 수상했다. 이들은 스마트팜 밀원 단백질보충제의 FTA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EU 수출 다변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독창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출 전략을 제시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KOTRA 사장상)은 강민송(22), 이서원(22), 허두용(21) 학생의 로코노미 화장품의 제3국 유통 전략을 통한 멕시코 시장 진출 방안 논문이 차지했다. 이들은 FTA를 활용한 시장

개척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목받았다. 동영상 부문 장려상(KOTRA아카데미원장상)은 김이수(22), 서지오(22), 최정현(22), 김연두(23) 학생이 수상했다. 이들은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 성공 사례를 가상의 콘텐츠로 제작해 창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성과는 전북대 무역학과 특화된 교육 과정과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다. 전북대 무역학과는 2021년 FTA 활용 강좌 지원사업에 선정, 학생들에게 FTA 기본 지식과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힘쓸 것”

서거석 교육감,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서거석 교육감이 청소년의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법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으로, 서 교육감은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지목으로 참여했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찾아가는 도박 예방교육, 도박 징후 조기 파악, (고)위험군 학생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 대상으로도 도박 예방교육 강화, 도박예방 카드뉴스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한 교원 대상으로는 도박 징후 학생발견 시 초기 개입 프로그램 운영, 도박 담당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박예방교육자문위원회 구성, 전북도박문제예방지원센터와 협력 체계 구축, 도박 중독 치료 전문가(병원형) 운영 등을 통해 중독에 빠진 학생을 위한 의료적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청소년 도박 중독 증가로 인한 SNS 불법대출, 대립입금 등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며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다음 주자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지목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기계공고, AI 로봇 SW 경진대회 ‘두각’

로봇 자동화 동아리 ‘알티노’ 2024년 주요 대회 4관왕 쾌거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임인형)가 지난 22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AI 로봇 SW 경진대회’에서 7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르면 로봇자동화와 전공동아리 ‘알티노’는 AI와 로봇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며 올해 총 4개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7월 열린 제2회 전북 SW 미래채움 SW AI Challenge 대회에서 창의융합상(도교육감상)을, 8월 열린 새마을주행자동차 AI 미션챌린지 대회에서 은상·동상·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지난 11월 개최된 WCRC 자율주행자동차 미션챌린지 대회에서도 금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동상·장려상을 받았다. 한편, ‘알티노’는 로봇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로, 주말과 방학 기간에도 자발적으로 연구와 실습을 이어오며 성장해 왔다. /장은성 기자



제이씨 예술단이 제작한 학교폭력 예방 창작뮤지컬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가 지난 19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첫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제이씨 예술단 창작뮤지컬 첫 공연 성료

제이씨 예술단(대표 박진철)이 제작한 학교폭력 예방 창작뮤지컬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가 지난 19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첫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뮤지컬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무대작품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학교폭력을 극복한 청소년들의 성장 이야기를 담아 사회적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했다. 창작뮤지컬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는 학교폭력의 피해, 화해, 치유 과정을 뮤지컬 형식으로 풀어냈다. 주인공들이 폭력과 갈등 속에서도 용기와 우정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번 작품은 박진철 총감독이 대본

작업을 맡았으며, 작곡은 강소라, 연출과 안무는 전태경, 조연출은 박유빈이 참여했다. 또한, 방지원, 구본용, 전민권, 이예지 배우가 출연해 무대를 생동감 있게 꾸몄다. 공연을 관람한 한 학부모는 “청소년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열연을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다.”며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연 관계자는 “이번 뮤지컬은 학교폭력을 단순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했다”며 “단순한 공연을 넘어 청소년들과 관객 모두에게 깊은 공감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국가유산청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 ‘최우수’

전북 서부권 문화유산돌봄센터... 남해경 센터장, 최우수지도자상 부안 지진 당시 신속한 점검, 긴급수리 통해 피해 최소화 ‘호평’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전북서부권문화유산돌봄센터(센터장 남해경)가 국가유산청에서 실시한 2024년도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에서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며 국가유산청장상을 수상했다. 더불어 남해경 센터장은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이는 2020년 설립 3년 만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최우수센터 선정으로 다시 한 번 전국적 위상을 드높였다. 이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26개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를 대상으로 진행, 센터는 우수사례로 부안 지진 피해 긴급 보수, 한옥 전문인력 양성·채용 및 고부재 활용 수



리 등 그간의 성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지난 6월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 당시 지역 내 문화유산의 신속한 점검과 긴급수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에서 양성한 한옥 전문 인력을 활용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같은 혁신적 운영 방식도 호평을 받았다. /장은성 기자



기전대-전주장애인복지관

산학협력 관련 협약 체결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현)은 24일 LINC 3.0 회의실에서 전주장애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장애인 재활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인 기능 중심 클리닉 필라테스를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대한ACPT협회(Korean ACPT Association)의 재활 전문가들이 참여해 장애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심리적 기능을 회복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작업치료 접근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전주기전대학 조희현 부총장, 교무학생처 김광수 처장, 작업치료과 안소현 교수, 입학홍보처 이지영 팀장, 대한ACPT협회 김현지 회장, 전주장애인복지관 나한별 사회복지사, 김옥희 팀장, 박용민 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전주기전대학 학교기업 JK힐링센터의 기능 중심 장애인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전주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